

海清堂

창간호
2538년 3월



松廣寺 僧伽大學 發行

창간사

해보다 더 밝고 바다보다 더 넓어
청청한 가슴으로 반야선 저어가는
당당한 그 모습 더욱 더 거룩하네,

은누리 모든 불보살님들과
그분들의 거룩한 가르침과
높은뜻 행하시는 스님들께
머리 숙여 이 몸 던지나이다.

『해청당』이란 이름으로 새로 태어난 저희들의 새 혼을 축복이라도 하듯이
해청당 이끼끼 웅마루 위로 새봄의 햇살이 부서져 내리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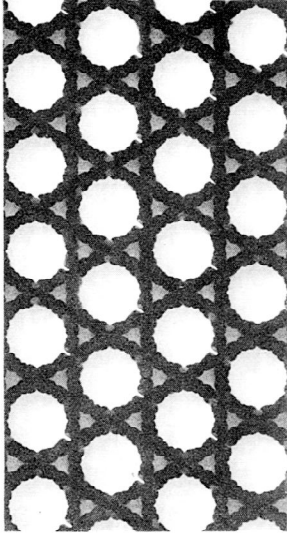
여러가지 미숙하고 모자라는 점이 많은 가운데에서도 우리 초심자들이 이
렇게 띄우는 이 새싹이 훗날 부처님 지행의 승결을 이어나갈 수 있는 큰 들보
가 될 수 있도록 여러 대증스님들께서 많은 가르침과 자양분을 주시길, 강원
대증스님들을 대신하여 엎드려 바라옵니다.

또 이 작은 바람으로 말미암아 날로 오염되어가는 우리의 현실들이 정말로
청정바다로 되돌아가시길 간절하게 바라오며 저희들도 더욱 더 진솔하고 올곧
은 자세로 배우고 닦아서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어려운 가운데서도 끝까지 힘써주신 여러 대증스님들께 구배드립니다.

나무석가모니불
나무석가모니불
나무시아본사석가모니불

법성료에서 고경



海清堂

창간호 / 2538년 3월

차 례

창간사 고경

강사스님 란

2/내무반 법회 지목

4/佛꽃놀이 지수

산문

8/거울 진경

10/어디로 갈꺼나 하일

12/어느 인연의 경우 원당

23/ '나' 라는 것의 군더더기 보적

시

11/해청당 인암

15/조계산사의 暮春 고경

19/봄소식 보원

26/나아난것같은나와나인것같은나 희일

만행일기

20/萬行落穂 도운

편지

16/쌍봉사에 있는 어린 부처님들께 시공

『해청당』 창간호

발행처 : 송광사 승가대학

발행인 : 고경<입승>

발행일 : 2538년 3월 1일

고 문 : 지운, 지목

편 집 : 희일, 보원, 혜관

내무반 법회

지 목 / 강사 스님

절 안에서 법회를 갔다가 군부대 내무반이나 소년원 등에 나가 법회를 가질 때 또 다른 감회가 있다. 35 경비대는 우리 절 스님들의 예비군 훈련 장소로써 순천에서 광양쪽으로 3키로 쯤 떨어진 주위 야산에 위치해 있다. 지난해에는 법사가 번갈아 나가 매주 토요일마다 35 경비대 내무반 안에서 법회를 보아오다가 금년에는 한 법사가 도맡아서 하기로 정하여 그 몫이 내게 떨어졌다. 내무반 안에 들어서기가 얼마만인가! 20 여년 전 훈련 받던 시절이 불현듯 머리에 떠올라 힘이 불끈 솟는 듯한 기분을 맛보았다. 땀과 눈물이 뒤범벅되어 땡굴던 때가 바로 엇그제 같았다. 내무반 안에는 기름 난로가 좌우 침상 사이에 놓여 있어 온기를 그런대로 느낄 만 하였다. 불상이나 부처님의 사진은 보이지 않고 목탁이 하나 놓여 있었다. 침상에 콩나물 시루처럼 뻥뻥히 앉아 법회를 기다리고 있는 쉰 명가량 되는 방위병이 고마웠다. 부처님 법문을 들겠다고 귀한 시간을 내어 앉아 있는 모습에 자책감이 앞섰다.

한번은 막대기로 잃어버린 목탁 채 대응으로 목탁을 쳐서 법회를 본 적이 있었다. 이때 반

야심경을치면서 예령과 동령이 있다는 점도 설명하였다. 딱, 딱. 딱딱딱딱딱딱. 여기까지는 예령이다. 예령의 속도가 다음 동령을 알리기 때문에 정확한 속도로 쳐야한다. 예령이 느리다면 동령도 느려야 하며 예령이 빠르다면 동령도 빨라야 하기 때문이다. 그 다음 동령은 낙수물이 떨어지는 소리와 같이 고른 간격으로 일자(一字)일탁(一托)이다.

모두가 주의 깊게 관심을 기울여서 법문을 듣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다. 무릎이 서로 닿지 않도록 떼어 앉아서 좌선을 시작 하였을 때에 동전치기 등으로 뭘 주고 받는가 하면 발원문을 낭송한 끝에 나무 본사 석가모니불 대신에 아멘하는 이도 있었다. 이런 이에게는 역행(逆行)보살 이라는 별명을 지어주고 역행보살 이야기에 들어갔다. 사고 뭉치는 다 역행보살로 사바세계에오신 분들이다. 자동차 사고를 낸 뒤에 어허 어허소리를 연발하면서 뒤통수를 굽적이는 승용차 운전 기사 역시 역행보살의 한 분이다. 안전 운전을 하지 않았을 때에 이런 비참한 결과를 빚는다는 사실을 몸소 보여주고 있지 않는가. 다른 이가 하기 어

려운 악역을 모조리 도맡아서 술선수범을 하니 거룩한 역행 보살이 아닌가. 사바세계가 불국토이고 그 불국토에 사는 이는 모두 불보살의 화현이라는 입장에서 불 때 지덕을 갖춘 순행(順行) 보살이 아니면 악역의 역행 보살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나무 역행 보살 마하살'. 앞으로 봄 여름이 오면 두가지 할일이 있다. 그들이 절에 와서 수계식을 하도록 차편 등을 준비하는 일과 내무반 안에 부처님을 모실 불단을 만들어 봉불 점안식을 갖는 일 등이 그것이다.

내무반 법회에 갑자기 열의를 갖고 일을 벌이는 데에는 까닭이 있다. 두어 달 전의 일이다. 인근 곡천 택시 기사가 호남 고속도로로 곡성 교차로에서 참상을 당해 49재를 원주 스님과 상의해서 모신 적이 있다. 택시 기사 가족 측에서 재를 모시도록 제의하지 않았으나 우리 절 스님들이 항상 이용해온 택시 기사였기 때문에 택시 회사를 방문하여 조문 인사를 드리고 재를 조출하게나마 절에서 모시기로 한 것이다. 특히 그때 교차로에서 참상을 당한 택시 기사는 고속 버스 운전기사의 무자비한 만행으로 희생된 사실을 자세하게 알게 되었다. 밤에 고속도로 교차로에서 택시가 길을 건너 가려고 하였을 때 시동이 늦게 걸린 게 탈이었다. 출발이 늦은 택시를 발견한 고속버스 운전 기사는 브레이크 밟아 돌발 사태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었으나, 그리하여 최소한 인명은 사망에 까지 몰고 가지는 않은 수 있었으나 자신의 과속 책임을 남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냥 돌진하고 말았다. 고속 버스가 급히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에 아스팔트 위에 타이어 바퀴 자국이 그대로 강하게 남아 과속 책임이 자신에게 다르니 것을 피하려 하였기 때문이란 다. 이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자주 이용하였던

택시 기사의 처참한 죽음에 애도의 뜻을 표하였다. 불법을 실천하는 길에는 여러 갈래가 있는데 지역 인근 주민과 호흡을 함께 하기 위해서는 관혼상제 등 큰 행사에 동참하고 법회를 자주 갖는 일 등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다.

한 종교 집단이 그 지역 인근 주민 속에 뿌리를 내리지 못한다면 생명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불사 때에 내거는 국제적이니 전국적이니 하는 거창한 표어에서 눈을 돌려 이제는 착실히 지역 인근 주민 속에 파고들 때가 오지 않았을까. 등잔 밑이 어둡다는 말이 있다. 절 아랫마을 사람들이 신심이 깊지 못한 예가 허다하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송광사가 서틀 버스를 운행하여 인근 학교 청소년은 물론 보살님과 처사님의 법회 동참에 편리를 제공할 날은 언제 올 것인가. 앉아서 한가롭게 편히 공양을 받아 먹는 데서 벗어나 알아서 적극적으로 포교 현장에 나서지 않을 때 이 음식은 어디서 왔는가. 내 덕행으로는 받기 부끄럽네. 하는 오판계는 우리를 더욱 부끄럽게 할 것이다. 한편 피나는 정진으로 산문을 나서지 않는 남자가 어찌 하화중생(下化衆生)의 몫을 다하지 않고 있다고 할 것인가. 자기 본분사에 충실한 수행 남자의 미담은 못사람의 귀감이 되어 언어 포교보다 훨씬 큰 파장을 일으키는 힘이 있다는 점도 지난번 성철 큰 스님의 열반을 통하여 잘 알 수 있는 일이다.

佛꽃놀이

지 수 / 강사 스님

영국인 여름불교학교가 8월3일 월요일부터 8일 토요일까지 래스터 (Leicester)주에 있는 래스터대학교(University of Leicester)에서 열린다. 좌선 지도와 금강경 강의를 위해 래스터로 가는 인터시티(Inter City-특급열차)를 타러 런던 시내의 세인트 판크라쓰(St. Pancras)역으로 갔다. 교통량이 많지 않은 역이어서인지 빅토리아(Victoria)역이나 유스톤(Euston)역과는 달리 붐비지 않는다. 대합실 안은 떠나는 사람들로 설레임이 감돈다. 일상으로부터 벗어나 눈에 불을 붙이고 컷 불을 뜨겁게 할 별난 것을 찾아 나서는 사람, 습관적 반복으로 계승츠레 감긴 눈을 번쩍뜨고 레코드판의 홈처럼 틀에 박힌 동작으로 굳어진 심신의 근육을 부드럽게 녹이고 기운을 불리일 으키고자 하는 이들의 자리다. 벽을 향해 처낸 공이 던진 자리로 되돌아 오듯이 집을 떠난다는 것은 집으로 되돌아가기 위한 첫발 디딤이다. 세계 쳐보낸 공일수록 강한 충격으로 돌아온다.

왕복 차표를 산 뒤 구내의 전화기를 한참 바라본다. 듣는 귀와 말하는 입이 양끝에 달린

송수화기다. 열린 입과 빈 귀가 묵직히 걸려있다. 누구의 말을 하는 입이며 어떤 말을 듣는 귀인가. 향로의 입과 침묵의 귀. 멀리 있는 인연이 코밑에 다가오고 눈앞에 보이지 않는 얼굴이 으뜸으로 생각한다. 떠남은 만남이기에 좋았던 지난 만남의 인연이 제일 먼저 새 만남의 문턱에 떠오른다. 그리하여 오늘의 만남을 물들인다. 광통신 케이블.

우유를 많이 넣은 홍차 한잔을 사서 객실에 오른다. 월요일 오후 지방으로 떠나는 기차 안은 승객들이 각자 적당한 공간을 누릴 수 있게 끄드문드문 자리잡아서 넓고 조용하다. 테이블이 앞에 놓인 좌석에 앉았다. 차곡차곡 개넌었던 마음을 꺼내어 여유롭게 흘린다. 날카롭게 울려퍼지는 출발 호각소리에 플랫폼에서 입에 뽀뽀하고 눈에 꽃불을 켜던 젊은 한쌍 중의 아가씨가 마치 나뭇가지 찢어지듯 마지못해 몸을 빼내어 차에 오른다. 아니짜(Anicca-덧없음), 두까(Dukkha-아쉬움, 아픔)의 생생한 연출이다. 흔적은 세월따라 빛바래 가도 생각에 불붙여 키우면 더욱 더 선명히 빛나는도다. 꼭대기는 뽀족한 바늘끝이다. 평평한 생활 전체가 뽀

족한 꼭대기인 그러한 인생길을 닦아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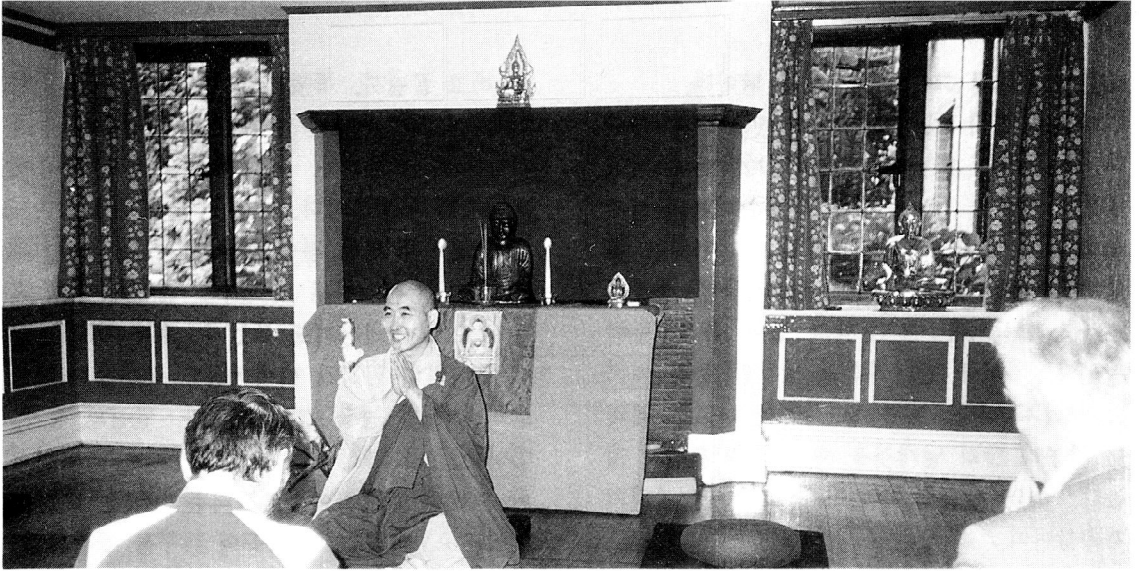
기차는 정각 13시에 서서히 미끄러져 나간다. 아, 이제 떠난다. 항상 발바닥엔 떠남이 맴돌고 가슴은 시퍼런 파도로 넘실대는데 이제 돛을 달아 바람잡는구나. 차창으로 비치는 햇살에 차안은 안온해진다. 성스러움이 정적의 빈터를 가득 채우고 영감의 불이 육근문두에 켜진다. 기차에 인터시티의 상징인 물찬 제비가 그려져 있다. 훨훨 빈 하늘을 나르는 제비는 아무리 빨리 날개짓을 해도 땀을 흘리지 않는다. 해와 별들의 길따라 옹아 사는 제비의 자유삶이여.

슬로우 모션으로 다가와 커졌다가는 확 뒤로 멀어져가는 풍경들. 널따란 들판에 둥글게 말아진 건조덩이들이 널려 있다. 먼 여행을 떠나기 직전 隊商들의 수레 바퀴같다. 희망의 짐을 가득 싣고 그리움의 채찍을 먹으면서 굴러갈 둥근 바퀴, 구르는 바퀴, 길의 생명이다. 어디가 처음이고 어디가 끝이랄 게 없이 축을 중심하여 모든 자리가 생명의 땅과 정면으로 살 부비는 촉각 예민한 살갓이다. 거대한 움직임이 엄청난 침묵으로 저기 멈춰 섰구나. 연한 쪽빛 하늘에 솟털 구름이 스카프처럼 드리워진 쾌청한 오후. 쪽빛 '하늘 마음'에 뽀얀 '솟털구름 생각'을 피워내는 인생이여. 주체하지 못할 정도로 치솟는 기쁨에 몸은 신경조직의 통제를 넘어선다.

강의 준비를 위해 금강경 한문본의 첫장을 펴놓고 바라본다. 금강경은 너와 나의 눈부신 만남의 빛자취, 가공되지 아니한 다이아몬드 광산의 광맥에 대한 간단한 스케치이다. 붓을 꺼내어 단숨에 大寂光 세글자를 제목 오른편 빈자리에 써내린다. 순간적 손놀림, 온몸의 기운이 한꺼번에 솟구쳐 세글자 위에 쏟아부어진 빛자국이다. 이미 눈빛으로 몸짓으로 법문은 다해 마쳤다. 주장자를 세번 칠까, 아니면 할

을 하고 끝낼까. 목젓까지 차오르는 이 빛덩이 말을 어떻게 쪼개낼까. 분광기로 일곱색 스펙트럼으로 우려낼까. 지나간 인생에서 무수히 읽어내린 금강경이다. 마지못해 졸면서 읽기도 했고 영가를 위해 절실히 읊조리기도 했다. 혹은 컷전을 편안하게 스쳐가게 하기도 했고 혹은 붓으로 써내리기도 했었다. 오직 지금은 안에 들어박힌 금강경 다이아몬드 구슬을 꺼내어 밝혀낼 불빛 눈을 켤 시간이다. 발견의 문제, 빛나는 눈을 가진 사람에게 금강경은 적나라하게 드러난 가르침이요, 희미한 눈에는 아직은 오리무중, 비밀교요, 공중의 뜬구름 잡는 얘기일 뿐이다. 순야타(Sunyata), 비었다. 뭐가? 잔이 비었고 밥그릇이 비었다. 그대가 내게 다가올 수 있는 것은 비었기 때문이요, 입이 뿜어내는 빛소리를 듣는 것 또한 비었기 때문이다. 생명의 숨결로 들이찬 참나무가 비었고 단단한 입자로 엮어진 쇠철문이 비었다. 如來說世界 非世界 是名世界, 色即是空 空即是色 受想行識亦復如是-우주는 텅빈 충만이다.

홀리데이(Holy+Day=Holiday), 즉 성스러운 기운에 흠뻑 젖어 영감의 샘물을 퍼올린 한여름날의 축제이다. 각자 육신은 저마다의 법당이다. 닦지 아니하고 빛나는 것은 없다. 성스러움은 닦아내고 엮어낼 때 홀연히 빛으로 나타난다. 함께 이루는 세상, 60여명이 하나되어 같은 곡조에 맞춰 춤 춘 정신의 마스게임이다. 빛나는 금강경의 나날이다. 서로의 얼굴들을 찌고 삼엽의 향기를 맡으며 영감의 물에 먹감는다. 아침 햇살에 핑크빛 꽃잎새를 열었다가는 지는 해 따라 단아서 벨버 어둠의 품에 안겨 잠드는 수련의 자태. 한 송이 영광을 위해 많은 잎새들이 벌레먹히고 찢기었다. 바람에 날리는 소리없는 향기의 태산목(Magnolia grandiflora)은 초대장을 보내지 않건만 저리도 많은 벌과 곤충 그리고 사람들



이 가까이 모여드는구나. 제모습대로 피어날 때 가장 아름답고 매력이 풍겨나는것을. 레바논 시다나무(Cedruslibani)는 무수한 주고받음의 삶을 가르치는가. 많은 가지 팔을 벌리고 있다. 완전한 집중의 침묵 가운데 지렁이 쪼는 지빠귀, 비둘기 자로 울어대는 긴 여름날의 오후, 머리가 어질어질하고 눈이 핑핑 도는 꿈길을 걷는다. 기쁨과 영감으로 들어차 순간의 틈도 없이 팔팔 영혼의 샘물을 퍼올린다. 죽음처럼 잠들고 새벽처럼 눈뜨다. 하늘에 초여드레 반달의 가슴이 부풀어 오르고 있다. 희미한 달빛에 소리없이 저내리는 노란 베나무 잎새 한 떨기. 사뿐사뿐 춤추며 땅 위로 내려앉는다. 저리도 우아하고 고고하게 갈 수 있을까. 세월이 일구어 놓은 얼굴의 주름들. 깨달음의 시절이다. 세월은 삶이 영글어가는 계기요, 틈새다. 서산에 해질 때 동산에 달 떠온다. 작열하는 햇빛에 무럭무럭 키크고 서늘한 달빛에 가슴 부푼다. 해가 가고 달이 오는 길목에서 인생은 금빛으로 익어간다. 주름골 이랑마다에서 지혜가 졸졸 흐르고 경험들이 보석으로 들어찬 로맨스 그레이를 넘어선 젊은 사람들이

다. 좁은 수반 위에도 인생의 기쁨과 동경을 압축해 내는 이계바나 꽃꽃이의 열정. 외래의 것이라느니 우리를 괴롭히던 나라의 것이라느니 하는 시간과 장소가 빛은 사건에 대한 감정적인 거부 없이 유익한 것이면 배워서 자기 것으로 만드는 넓고 행복한 마음들. 정신이 배움으로 뻗어나고 눈망울이 미지를 향해 깊어지는 사람들은 나이에 아랑곳없이 사랑롭다. 서로를 가두지 않으므로 해서 각자 독특한 생명으로 살고 그리하여 그 빛깔과 향기로 서로를 운택하게 하여 은근하고 질긴 색실 인연을 엮어간다.

뇌수술 앞둔 존을 위한 축복기도로 성스런 주문의 흘려넘은 얼마나 靈感으로 禪室을 가득 채우는가! '신묘장구대다라니 나모라 다나다라 야야 나막알약 바로기제 새바라야 모지 사다바야.....'. 손에 손을 하얀 실로 이어잡고서 각자의 자비심을 한데 흘려내어 만든 聖水, 그리고 그 大悲聖水에 함께 젖음이어. 우리가 만드는 최고의 생명작품이어라. 열반언덕에 오르는 길, 지도를 읽는 것이 아니라 열반의 살림살이 자체를 누려서 그 기운을 흘려낸다.

살갓의 털구멍마다 범열을 뿜는다. 눈이 촛점을 잃고 온몸의 구멍들이 입을 벌려 안에서 솟구치는 기쁨을 내보내고 동시에 밖의 기운들을 안으로 빨아당긴다. 몸이 그대로 빛을 뿜어내는 發光機이다. 열락의 폭발이다. 엄청난 속도로 몸이 돌아가면서 우주기운의 진동을 노래하고 춤춘다. 내부의식이 표면의식을 뚫고 나와 색계 위를 활보한다. 온 기운이 붓끝에 모여 금강경 사구계를 흘러내어 금강경이 되고 내가 되고, 내가 금강경이 되고 금강경이 내가 되도다. 할 수 있는 일은 아무 것도 없다. 오직 육근문두를 한껏 열어젖혀 자신을 벗어버리는 일 밖에는. 홀연히 오는 것. 홀린듯이 가득 들어차는 것이다. 어디로 갈까, 어디에서 발견할까, 누구에게 물을까, 수련에게 향기를 맡을까, 꿀벌에게 넥타의 맛을 물을까, 로빈에게 노래를 들을까…… 밖으로 찾아 헤매는 것은 맑게 가라앉은 흙탕물을 휘저어 다시 더럽히는 일, 평지에 풍파를 일으키는 망침이다. 시선을 거두어 들여 마음을 바라보아 자아의식이 완전히 견어진 순정 일점(純精一點)이 되어라. 삶은 어딜가나 하나. 오직 마음빛덩이 하나 캐내면 그대 육신은 어디에 있던 간에 안락 행복 열락의 놀이터이다. 뭔가가 안에서 일어나 옆가슴들에게로 옮겨가는 깨달음의 캠프 파이어 시간이다. 혁명의 시절이다. “뭔가가 들어오는 걸 느껴요.” “감전된 듯한 충격입니다.” “이 알수 없는 신비한 기분에 대하여 설명해 주세요.” 이미 시간과 장소가 변해버려 언어를 통한 논리적 대답은 향기와 의미를 다칠 뿐이다. 썩곳 웃음짓고 그냥 함께 이렇게 벤치에 앉아 햇살 머금어 투명한 초록 잔디밭에다 눈을 놓아 쉬면서 차를 즐긴다.

눈에서 일어나는 깬의 아침이다. 60여 송이의 얼굴들마다에는 표정, 냄새, 분위기, 걸음걸이, 선실에서 의 자세, 마음속에 흐르는 생각

의 너울들이 새겨진다. 세포 알알 마다에서 죽음이 살아움직이고 죽음의 낭자한 葬地에서 삶이 침묵으로 꿈틀댄다. 넘치는 가슴의 이 답답함이라니. 보드라운 젖빛 크리넥스로 더운 눈물을 닦아낸다. 하루 이를 만나는 횡수가 늘어남에 따라 인연줄은 질기게 땅아진다. 작별에 즈음하여 미소면 얼굴 깊은 눈망울에 가득 담은 아쉬움, 끌어당김의 기운을 본다. 눈을 통해 튀겨내는 빛말들. 군바이! 세 음절에 모든 바람이 농축되어 있다. 좌선실에서 마주 앉아 무한 갈래 마음길 산책을 하는 사이, 금강경 빛물에 함께 젖는 사이, 자스민 덩굴 흰꽃 아치미를 산책하는 사이, 점심 공양 올리고 받는 그 향기로운 사이에 낮설던 인간의 모습 인상 표정 목소리 냄새 맛 생각들을 몸속에다 깊숙이 심어왔다. 서서히 가까워지고 깊어졌다가 갑자기 떨어져간다.

이 시간이 지난 뒤에 우리는 다시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 잠시 접어두었던 일상들을 다시금 펼쳐내어 저마다의 정해진 담속에서 살아가리라. 잊지말자. 이곳에서 우리가 일주일 동안 함께 연출해 낸 일들을 마음의 영사기에다 자주 상영하자. 이 자리의 정경과 분위기를 간직할 때 생활에 활력이 솟고, 그 향기가 코를 때릴 때 의식이 밝게 깨어나리라. 칠흙 어둠속의 반짝이는 등대가 되리라. 서로 떨어져 가도 마치 아침 햇살에 은빛 비늘을 번쩍이며 튀어오르는 로몬드 호수(Loch Lomond)¹⁾의 연어처럼 서로의 마음 속에 길이 빛으로 살아가리.

1. 스코틀랜드 서부에 있는 영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호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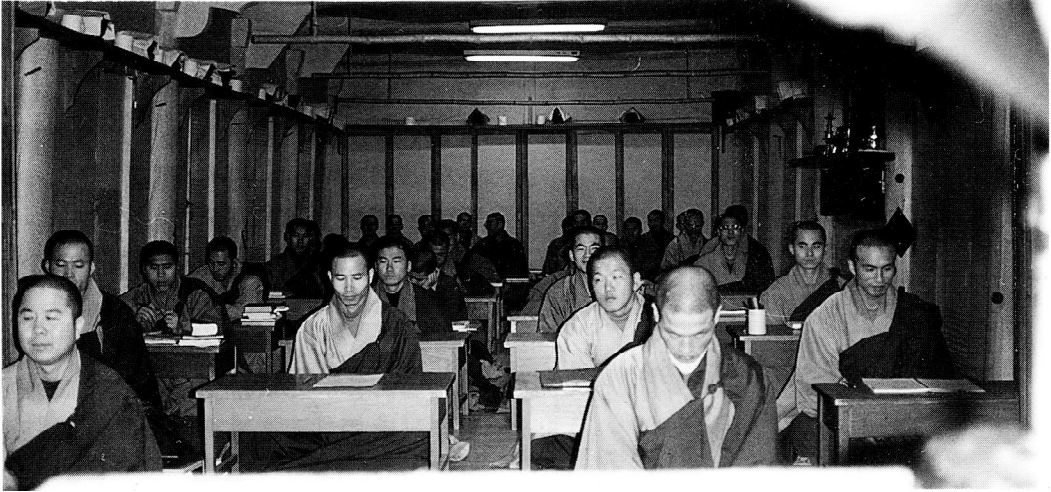
거울

진경

거울은 나의 삶에 있어 중요한 동반자 중의 하나이다. '나'의 성장과 함께 다양한 용도로 '나'를 지켜본 산 증인이다. 사춘기 때부터 얼굴에 생기기 시작한 여드름을 제거하기 위한 작업의 중요한 도구로 등장한 것이 내가 기억하고 있는 첫만남이리라. 성격탓인지 몸에 조그만 종기나 이상이 있어도 그냥 두지를 못하고 끝내 피를 봐야 직성이 풀렸다. 그래서 내 얼굴 피부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여드름을 잔자국이 많은 흉터로서 닭살(?)로 변해있다. 책상에 앉으면 습관적으로 거울을 꺼내들고 '청춘의 다이아몬드'를 탐사하는 것이 공부하기 전의 Warming-up이었다. 처음은 이 작업이 귀찮고 신경질 나던 것이 나중에는 즐기는 쪽으로 변해버린 것이었다. 여물지 않은 것을 잘못 건드려 손독이 올라 고약을 붙인 모습을 거울 속에서 바라보며 약올라하던 시절이 있었다.

좀 더 시간이 지나 이성에 눈뜰 때 쯤에는 거울의 용도가 얼굴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전체를 두루 관찰하는 것으로 범위가 확장되었다. 목욕탕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은 전혀 마음에 들지 않는 처음보는 이방인이 들어있는 것 같이 느껴졌다. 아무리 들여다 보아도 못생긴 얼굴이요, 가슴은 절벽이요, 갈비뼈는 앙상한 가지만 남기고 홀로선 고사목같이 황량하고... 부모를 원망하기도 했다. 왜 잘생기고 건장한 나를 낳지 않았느냐고. 그래서 육체미 체육관을 다니면서 몸을 가꾸는 작업을 해본 적도 있다.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부터 거울의 역할은 조금 달라졌다. 사회생활을 잘 하려면 싫어도 좋은 척, 없어도 있는 척, 슬퍼도 즐거운 척, 몰라도 아는 척 등등 표정의 연기를 잘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세속적인 삶을 사는 선배들의 충고였다. 나의 단점은 얼굴 표정에서 싫고 좋음이 분명하여 가끔 주변사람들을 불안하게 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 뒤로 '사건'이 있을 때마다 화장실에 있는 거울로 나의 표정을 관찰하며 조절하기 시작했다. 배우가 연기 연습을 하는 것처럼.

그러나 잘 되지 않았다. 여기에서 나는 새로운 고민이 시작된 것이다. '무엇이 나를 이렇게 화나게 만드는가? 무엇이 나를 이렇게 슬프게 만드는 것인가?' 등의 의문이 꼬리를 물기 시작했다. 거울을 통해 외형의 모습을 살펴본 것이 내면의 '나'를 관찰하는 작업으로 변했다. 거울에 비친 나의 모습을 통해 지금의 심리상태가 어떠한가를 알 수 있게 되었다. 좀 더 나아가 심리상태에 따라 나의 얼굴표정이 좌우된다는 것도 이해하게 된 것이었다. 이때 짬 불교교리에 대한 많은 관심이 고조되었던

것 같다.

요즘은 거울 없이도 '나'를 관(觀)함으로써 나의 표정을 읽을 수 있다. 육조단경에 나오는 신수대사의 계송

'몸은 깨달음의 나무요
마음은 밝은 '거울' 바탕일세
때때로 부지런히 털고 닦아서
먼지 끼거나 때묻지 않도록하세'

이 내게 더 호소력 있게 들렸던 것은 '거울'과의 인연 때문이 아닐까?

출가하여 은사스님과의 인연으로 거울과는 불가분의 관계를 맺게 되었다. 한여름날 저녁에, 땀에 젖은 행자복으로 탑전 땅바닥에서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리며 '眞鏡'이란 법명을 받던 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경건해진다. "열심히 수행하여 '참된 거울'이 되어 내 자신도 밝게 비추고 사바세계 중생들에게도 밝게 비추어 주어야 된다" 고 하시던 은사스님의 법문이 지금도 귀에 쟁쟁하다. 나는 거울과의 인연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이 거울의 참 성품을 깨달아 마치는 그날이 올 때까지 精進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어디로 갈꺼나

하 일



○○부대 수송부에서 군복무를 마치고 제대한 나는 첫새벽을 여는 운전기사로 활동했던 시절이 있었다. 집에서 놀고 먹기가 뭐해서 배운게 도둑질이라고 택시기사를 했던 것이다. 말로만 듣던 사회생활의 걸음마를 하나하나 보고 배워갔다.

아침 일찍 눈을 비비며 회사에 출근하면 동료직원들과 함께 차를 세차하고 차를 교대한다. 차에 이상이 있나 없나 확인하고는 곧 어두운 새벽 라이트를 켜고 도로를 질주한다. 전날 저녁에 이슬비가 내린 새벽도로는 조금 미끄럽다. 노면에 자동차 불빛이 반사되어서 운행하기가 불편하다. 그래도 하루의 사납금을 채우기 위해서 달리고 또 달린다. 저 멀리서 한 아주머니가 시장바구니를 들고 손을 든다. 나는 브레이크를 가볍게 밟으면서 아주머니 옆에 차를 세운다. 아주머니는 문을 열고 타면서 “기사님 시장으로 갑시다” 한다. 나는 택시미터기의 버튼을 누른다. 750원! 나는 라디오 볼륨을 조금 올려 음악에 맞추어 운전한다. 어느덧 시장앞에 당도하여 아주머니가 내린다. 다음 손님은 터미널로 가자고 한다. 두 명이 합승한다. 합승하면 돈을 두 배로 받을 수 있어 어깨가 한결 가볍다. 터미널에서는 버스에서 내리는 손님을 기다린다. 여기서 동료직원을 곧잘 만나곤 한다. 그들을 만나면 전쟁터에서 전우를 만난 것 같이 반갑다. 택시기사의 인사는

“오늘 얼마 벌었어”

“오늘 기리(운수) 어때”

터미널에서 내리는 손님을 기다리며 담배를 한모금 내뿜고 있자면 차례가 돌아온다. 중년 신사가 서류가방을 들고 탄다. “공항으로 갑시다” 공항까지는 요금이 6,000원이다. 장거리 운행이라 운행하기가 편리하고 요금도 많아서

기분이 좋다. 공항까지는 4차선으로 시속 80Km로 달린다. 나는 시속 100Km까지 밟아 공항에 도착한다. 시내로 들어오면서는 4명 합승하여 1인당 1천원씩 받는다.

7시다. 아침식사를 해야한다. 다시 도로로 나오면 7시 30분. 한참 바쁠 시간이다. 출근길 버스는 만원이고 차량 통행도 거의 거북이 걸음이다. TV에서 동물의 왕국을 보면 수많은 동물들이 벌판을 달려가는데 징그럽게 많은 동물들의 뛰어가는 모습처럼 정말 징그럽게 많은 사람들이 길거리에 우글거린다. 나는 출근하는 사람들, 등교하는 학생들을 정신없이 실어나른다.

등교길, 하교길, 출근길, 퇴근길, 밤늦게 집에 돌아가는 사람들. 새벽같이 집을 나서는 사람들. 이 많은 도로와 차바퀴와 걸음들. 나는 빈 차를 운행하다 네거리의 교차로에 이르렀을 때처럼 갈피를 잡지 못해 멍텅구리가 되버릴 때가 있다. 그때는 스스로에게 묻는다. 그들은 모두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나는 어디로 가야하나.

조계산 넓은 가슴에 몸을 던진 지금, 내게 가야할 곳이라곤 세상 어디에도 남아있질 않다. 왜냐하면 나는 세상으로 향하는 길 위에서 발길을 돌려 다시 내계로 돌아오고 있기 때문이다. 돌이키고 돌이켜서 시속 80Km로 질주하던 나의 차바퀴는 이제 <타이어표 진짜> 고무신으로 바뀌어져 버렸고 내일도 모래도 조고 각하(照顧脚下), 나의 발길을 놓치지 않고 살피 시시로 거각할 것이니 그렇게 하면 이 소소 영령한 주인공의 발목을 마침내 붙잡아 기필코 집에 이를 소식이 있을 것이다. 이 아침에 스스로에게 이르노니 하일(何一)이여. 하나는 마침내 어디로 돌아가는고.

東川邊 海清堂에 달을 베고 누었으니
 퇴枕님 물소리가 달빛을 부수운다
 두어라 銀河水 소리를 누어듣는 이 山房

—인간스님의 송광사순례시조집 중에서—



어느 인연의 경우

원 당

가야산 빈 골 마다에 번뇌의 불이 사그라졌음을 알리는 범종의 긴 타성이 이른 아침의 정적을 깬다.

1993년 11월 4일 해인사로부터 전해온 내용을 듣자 절해고도에 빠진 듯 텅빈 가슴에서 뭐라 형언할 수 없는 애절한 감정이 북받쳐 올랐다. 그렇게 짧지만 앓았던 지난 날들의 연분에서 배태된 여러 추억들이 뇌리 깊숙히에서 영상처럼 스쳐 지나간다.

냉철히 살펴보건대 누구나 또 언젠가는 벗어 던져야만 할 허망한 고깃덩어리이고 보니 너무나도 당연한 일임에 틀림없다. 가시는 당신의 입장에서야 꿈의 집합체인 한 몸의 집착을 여의고서 윤회의 매듭을 훌훌 털어버리셨으니 더 이상 비할 수 없는 열반락에 안주하셨겠지만, 범부의 편에서야 큰 빛을 잃지 않으려는 강렬한 바람에 갖가지 오열의 싹들이 삐죽 삐죽 머리를 쳐든다.

오고 가는데 조금도 꺼리낌 없는 자재한 분이라, 우리들은 당신의 수행가풍과 남기신 법어를 갖대삼아 각자의 본분사를 참구하기에 가일층 정진해야할 것은 지당한 도리며, 이 길

만이 진정 당신의 은혜를 갚는 바른 길이리라.

차치하고 개인적으로 응어리져 풀리지 않는 것은 세속의 연이 다하시는 그날까지 옆에서 직접 모시기로 서원한 것 이루지 못하고, 공부를 해보겠다고 결을 떠나온지 채 두해도 되지 못하여 가셨으니... 돌이켜보면 당신과의 인연은 남다른 기연같은 것이 작용하지 않았나 싶어 진솔하게 몇마디 펴보고자 한다.

요즘 사회에선 경제적 풍요로움으로 인간 의식구조가 편협되게 승화되어져 '3D 기피현상' '효사상의 쇠퇴화' 등 기형화 되어가는 현상을 초래하기에 이르렀고, 우리 절집에서도 새로 머리깎는 이들이 이러한 환경 속의 영향을 받아서인지 아니면 말법화되어가는 징조인지는 잘 몰라도 생활여건이 어려운 도량으로 향한 발걸음이 뜸해지는 경향이 일고 있어 생활조건이 완화 등으로 자구책을 모색하고 있으니, 정말 세속의 근기에 맞물려 들어가는 출세간의 풍속도가 아닌가 생각되어진다.

아무튼 출가동기, 신심, 지원자수 등 제조권속에서 명맥유지를 위해 평가절하된 현 실정하에서 우리가 흔히 접하게 되는 문제점 중 시

급한 것은 시봉이라는 과제가 두드러지지 않나 생각한다. 그렇지만 비구니계에선 제방편력의 필수이력사항으로 일정기간의 의무시봉 및 소임살이 등이 잘 적용되어져 그런대로 원활하게 운영되어진다고 할 수 있지만, 비구계는 과연 인옥수행이라는 참 나의 발굴작업(?)을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을런지 스스로들 자문해 보아야 되지않을까 한다.

내가 이 문에 들어오기 전에는 한 종단의 지도자라는 지극히 단순한 정보 밖에 접하지 못했던 그분과는 해인사 큰절 행자실에서 방장실인 퇴설당으로 소임이 바뀌면서부터 인연을 맺게 되었다. 어느 분의 소개나 누구를 은사로 택한다는 등의 어떤 계획된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맺어진 인연이었던 것이다. 아니 좀 더 억지를 붙인다면 불보살님께서 인도하시어 선지식에게로 끌어주신 것은 아니었던가! 살아가면서 알게 되었지만 세간에서 흔히 삼천배 참회를 통해서만 친견이 가능하였고, 최근에는 그마저도 불가능한 상황에서 그 분과 한 지붕 아래서 산다는 것은 얼마만큼 인연이 지중한 것이었는가를 입증해 준다고 할 수 있다.

회고해 보면 세속의 연을 내팽개치고 마음의 발을 갈기위해 미리 답사하여 짐찍어 두었던 한갓진 모 암자어로 수양을 핑계삼아 절집사 정도 알고 자신의 신심을 거량할 양으로 가 입산하게 되었다. 그 암자에서 나무하기, 장작패기, 밭일 등 잡다한 소일거리로 벗삼으며 외연(外緣)을 끊고 내면을 반추하는 기도 등으로 앞서 온 판 젊은 친구와 한 방에서 지내게 되었다. 이때 정말 강렬한 구도의욕이 끓어오른 때라 일을 닦치는대로 해치우는 '말뚝신심'을 보여줘 그야말로 천직을 얻은 듯 생활자체가 정진으로 연결된 그런 나날이었다.

그렇게 지낸지 일 여년이 되던 어느날 정해진 매일의 기도를 마치고 범당을 나와 취침하



러 가던 중 별들만 총총한 밤중이었는데도 유독히 서쪽 하늘에 오색 빛을 띤 서광-탱화의 광배부분과 거의 같은 상태-이 높이 솟은 언덕 위에 자리잡은 의상대(암자내 건물명) 뒷편에서 부채꼴 모양으로 넓게 하늘을 향해 치솟아 뻗어있었다. 처음 보게되는 이 광경을 의아해하며 한참 넋을 잃고 감상한 후 잠자리에 들었다. 이튿날 스님께 여쭙니 방광이란 것인데 증거보존용으로 사진에 담지 않았느냐고 저옥이 계산된 힐책을 당했지만 당시에는 마음속으로 패념하지 않았다. 세월이 흐르면서 기도 사례, 영험담 등을 통해서 비로소 기도중 세웠던 원력(바른 선지식의 안내를 받은 입산출가)이 성취될 징조였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즉 불보살님의 가피력이 발동할 정도의 신심이 통했다고나 할까?

이런 지극한 기도의 복전을 일구워 둔 결실을 어른을 곁에서 모시면서 나름대로 큰 무리

없이 이행한 것은 껍이나 다행스러운 일이고 나아가서는 시봉하는 가운데 초발심자에게 베푸는 언행 하나하나가 다 수행지침으로 몸 속 깊숙히 스며들었으니 그 어떤 보물보다 값진 것이 아닐 수 있겠는가! 물론 당장에는 이해가 되지않는 것들도 많았지만 살아가면서 그런 것들은 차차 자명해 지리라 믿는다.

거듭 강조하지만 이 모든 것은 출가 전후를 통하여 끊임없이 밀고 나아가는 정진력(기도)이 밑거름이 된 것을 몸소 체험하게 되었다. 특정 기간을 정하여 용맹정진을 행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평생의 업인 우리 수행자의 입장에서야 소임을 성실히 이행해 가면서 면면

히 행하는 그런 정진 속에서야만이 본연의 모습을 찾는 아늑한 향내음 풍기는 아름답고도 그윽한 꽃을 피워가는 끝없는 자기 구체화 작업이 아닌가 생각되어진다.

끝으로 이렇게 내뱉은 얘기가 아상의 발동으로 잘못 오해될 소지가 내포되었지만, 굳이 억측으로나마 이렇게 표현한 것은 좀 더 심도 깊은 그 무엇을 찾아 내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여서이다. 각자 창고 깊숙히 내장된 무궁한 보물을 지키기에만 궁궁하지 말고, 차차 드러내는 작업에 흐트러진 우리의 마음을 채찍질 하자.

원 고 모 집

『해청당』에서는 다음호 원고를 모집합니다.
글의 형식이나 주제는 자유이며, 진실되고 소박하며 꾸밈이 없는 글이면 환영합니다.
강원대중 모두의 『해청당』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동참 바랍니다.
원고는 수시로 접수하오니 언제라도 편집실 문을 두드려주세요.
『해청당』이 계속 발간될 수 있도록 모두 동참합시다.

『해청당』 편집실

조계산사의 暮春

고 경

日薄西山(해질녘)

화엄전 용마루
 이끼너머
 첩이른 부엉이
 홀로 우는 곳
 해는 하마
 뺨남짓 남았는데
 풋청춘 연록스님
 백초만화 만다라
 劫外歌로 엮어
 들감없이
 수놓고 있다.

저녁예불

우화각 홍예다리
 냇물에 잠겨
 온누리
 뜻님의
 놀처럼 타는
 티끌
 부치는 사미승의
 장삼자락
 그림자 길어
 복사꽃 살구꽃잎
 반야선 지어
 노저어간다.

도량석

大熊처럼 웅크린
 산등성이 위
 불거진 노승에
 걸린 그믐달
 별뚝에 부딪쳐
 잠못이룬 객승의
 길은 더욱 멀어도
 추녀밑 제비집
 상기도 한밤인데
 또르르 목탁소리
 어둠을 깨우친다.

노래부르는 해

절길
 나무숲
 이슬먹은 잎새로
 햇살 부서져
 잠쟁 아가에게
 젓먹이는
 엄마 낮빛
 지뽀기는 산새
 나무들 숨소리
 절길 찾는
 나그네의 벗
 너나없이
 불러보는
 교향곡.

쌍봉사에 있는 어린 부처님들께

시 공



지금은 송림사 강원 (스님들이 공부 하는 곳) 앞마당에는 흰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흰눈을 보고 있노라니 우리 어린 부처님의 얼굴들이 흰눈과 함께 땅에떨어져 자꾸만 쌓여 갑니다. 모두들 아픈 곳은 없는지 추위에는 안 떠는지 오늘따라 스님의 두 어깨가 무겁게만 느껴지는 것은 왜 일까요. 스님이 처음 작은 부처님들과 만났던 것은 큰 대지의 생명들이 눈을 뜨고 개나리가 활짝활짝 웃음짓던 때였지요. 부처님들을 처음 만나게 되던날 종종종 쌍봉사 앞을 흐르는 시냇물처럼 맑고 깨끗한 부처님들의 마음을 오래오래 간직할 수 있도록 돕게된 일을 스님은 무척 기뻐했답니다. 책상앞에 앉아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지난 여름방학 수련회 때 아마 난생 처음으로 집을 떠나서 절에서 성명 서로 별명을 지어 부르던 일. 공양주 보살님께 말쑥을 잘못드려 버릇이 없다며 엉덩이에 북이나게 얻어 맞던 일. 선재놀이를 하면서는 문제를 풀지못해 툇기 똬, 팔굽혀 펴기, 똬박질 등 온갖 힘든 벌을 받으면서도 서로 도우며 문제를 풀려고 애를 썼고, 부모은중경을 사경할때는 모두가 한 톱막을 쓰고는 한 번 적하고 한 톱막을 쓰고는 한 번 적하고 끝내 극락전 법당이 옥윤바다가 되고 말았었지요. 아버님 어머니 은혜가 얼마나 깊은가를 느끼며 참 고운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맑고맑은 보석같은 눈물들이었어요. 사경이 다 끝나고도사랑하는 부모님, 이웃 친구들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모든 분들에게 다시 감사와 참회를 하기위해 백팔배를 더 했으니 아마 그날이 가장 절을 많이한 날인데 틀림없을 거예요. 그리고는 불꽃놀이도 했지요. 촛불을 켜고 소원도 빌었었지요. 어린 부처님들은 세상에 태어나 처음으로 공양그릇을 깨끗이 물로 씻어 마시며 이 모든 것이 내게 오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분들의 수고로움이 있었는

지를 분명히 알 수 있었을 거예요. 어떤 부처님들은 공양이 너무 많아서 울면서 억지로 다 먹었으니 평생을 두고 잊지 못할 일이 되겠지요. 고운 시골 부처님들을 생각하는 이 마음은 쯤처럼 끝나지 않는군요. 스님과 함께 강물에서 물장구치던 일이며 초파일 때 모두 모여 탕독이를 하던 일, 몇 번은 청소를 잘 못했다고 벌까지 받았었지요.

스님이 송광사로 공부하러 떠날다니까 그 맑고 맑은 눈에서 보석같은 눈물을 뚝뚝 떨어던 우리 어린 부처님들, 우리 부처님들이 쌍봉사에 다니더니 말도 잘듣고 공양도 깨끗이 하고 공부도 더 부지런히 하고 많이많이 어른스러워 졌다는 말씀과 그리고 스님이 송광사로 갔다고 하니 공양도 안하고 울더라는 이야기를 듣고 스님은 한 편으로는 잘 한다고 하니 흐뭇하기도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쌍봉사 만큼 큰 바위가 스님을 짊어주고 있는 것 처럼 마음이 무거웠답니다.

스님이 고등학교 1학년 때였어요. 그때까지도 힘들게 힘들게 살아가고 있을 때였어요. 학교에서 겨울 방학을 했지만 남들 처럼 놀러 가지도 못하고 스님은 돈을 벌기 위해 남의 집 꽃가게에 가서 방학동안 꽃배달을 해주기로 했었답니다. 그러던 어느날 하루는 주인 아저씨께서 하루 쉬고나서 이틀날 아침 8시 까지 가게에 나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나 이틀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 밤새 눈이 너무 쌓여서 길에 차가 다니지를 않았더랬어요. 스님은 마음이 좁이더 다른 분들 처럼 차가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마침 연탄차가 한 대 오더니만 스님만 태워주는 거예요. 8시 까지 가지 못하면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 될 것이고 그런 사람을 어떻게 믿고 장사를 하겠느냐며 쫓겨날 판인데 연탄차가 가게앞까지 태워다주었으니 얼마나 고마웠던지요. 그래서 스님은 호주머니에 천원이 있길래 고맙습니다 하고 드렸어요. 그 분은 마다하며 나에게 고마움을 느낀다며 그 고마움을 느낀만큼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고 하고하시는 가버리셨어요. 지금까지 스님은 그 분 처럼고운 말씀을 나뉘드리고 싶습니다.

나를 사랑해주는 모든 분들의 은혜에 감사함을 느낀다면 느낀만큼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어주세요. 남들에게 베풀어주는 만큼 여러분들은 마음이 밝아지고 스스로 부자가 됩니다. 스님은 힘들고 어려움이 닥쳐올 때마다 스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들이 항상 주위에서 지켜보고 계시는데 어떻게 실망을 끼쳐드려 은혜도 모르는 진승이 되겠는가 하고 입술을 피가 나도록 짝 묻고 힘을 내곤 한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파란 가을 하늘 처럼, 온갖 더러움을 쳐다 덮어버리는 흰 눈 처럼, 깨끗한 마음을 가진 우리 부처님들, 지금도 쌍봉사에는 부처님들이 쓴 편지들이 가득 쌓여 있지요.

햇님 달님과 같은 밝은 얼굴은 모두 건강하게 법회에 다니고 있다고 하니 여기에서 공부하는 스님은 어린 부처님들을 만나게 해주신 큰 부처님의 자비하심에 참으로 머리숙여 감사 드립니다. 편지를 쓰고 있자니 여러분의 목소리가 가까이에서 들리는 것 같군요.

“여러분 준비 됐나요.”

“준비됐어요.”

“박수 세 번”

“쌍봉!사!”

“에이, 파리가 지나가면서 웃는다. 다시 한 번”

“쌍봉!사!”

“이번에는 부처님이 웃으시네.”

쌍봉사의 어린 시골 부처님들 다시 만나 스님과 함께 손잡고 저 넓고 푸른 벌판으로 달려나갈 때까지 잘 계세요. 감기도 조심하고 심부름도 잘 하세요.

항장은 연꽃이요

이 몹은 공양거리

착한 마음은 참된 향이니

부처님의 자비하심 말쑥

멀리 멀리 퍼지네



봄소식

보 원

생각하면 지금도 머리가 뜨거워집니다
제 몸에 신나를 붓고 개처럼 그늘은 시체가 열사란 이름으로
제단에 바쳐지던 그해 봄
부끄럽게 살지말자던 그대마저
총무로 뒷골목에서 쫓기다 쓰러져
군화발에 짓뭇개져 거짓말 같이...
경춘선 기적에 젖은 가슴이 우는 북한강가
마석 모란공원에 그대를 묻고
나는 열흘 넘게 활활 타다
응급차에 실려가 모르핀 주사를 맞고
수명이 다된 형광램프처럼 깜박깜박 꺼져가던 그해 봄에도
아버지는 눈하나 까딱하지 않으셨습니다
일주문 앞에서 공중전화로 마지막 용서를 빌 때 아버지가 울먹이셨습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셔서도 눈물을 흘리지 않아 흉을 잡히신
아버지가 흐느껴 우셨습니다.
나는 울지 않았습시다.
막내 아들을 위해 모아두셨다는 전세돈은 영영 써보지 못할 듯 합니다.
해제하면 마석에 가려고 합니다.
그대가 좋아하던 튜올림을 한아름 안고
스물 다섯 생애가 서럽게 새겨진 묘비를 쓰다듬으며
그대 이제 꿈 속에 그만 오라고
금강경을 외며 달래볼까 합니다
다음 생에는 그대 무덤가에 한 송이 할미꽃으로 피어도 좋겠습니다

조계산에는 지금
눈 속에 평평
동백꽃망울이 터지고 있습니다

萬行落穗

도 운



5월 2일 수요일 맑음

어디론가 떠난다는 것은 참으로 신난다. 시나브로 엄습해 오는 가벼운 설레임을 누르며 나는 미리 부터 짐을 꾸리느라 부산하다. 처음 발심 출가한 西庵을 떠나跋涉(산을 넘고 물을 건너 여러지방을 돌아다님) 한지 벌써 며칠이 지났다. 내가 들렀던 절은 때마침 가사불사 중이었다. 어디서 용케도 소식을 듣고 이십여명이 넘는 객승들이 객실을 메우고 있었다.

나는 머리깎고 처음 나들이 하는 올챙이 중이다. 사뭇 관록이 왕성한 그들 틈바구니에 끼어 죽은듯 한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많은 것을 듣고 배운다. 다음날 그곳을 떠나려는데 함께 밤을 새운 한 스님이 이왕이면 객비라도 타가자기에 나혼자라면 언감생심 엄두도 못낼 일이지만 그 스님의 힘만 믿고 함께 종무소에 갔다.

그런데 종무소에서는 참으로 진기한 광경이 벌어지고 있었다. 약 이십명이 넘는 전국구, 지역구 스님들과 소임자간에 실랑이가 한창이다. (전국구 스님: 전국의 사암을 다니며 객비를 구하는 스님. 지역구 스님: 적은 지

역을 돌며 객비를 구하는 스님). 한 쪽은 객비를 달라느니 다른 한 쪽은 이미 스님 수대로 다 나갔는데 한 사람이 두 번씩 탕기 때문에 그러하니 더 줄 수 없대느니 하고 밀고 당긴다. 나는 현기증을 느꼈다. 산문을 나서는 내 두 다리는 맥이 싹 풀려서 걸을 수가 없었다.

나는 냇가에 주저앉아 저 푸른 하늘 높이 점점이 떠가는 흰 구름을 하염없이 바라보며 사념에 잠겼다. 주는 사람은 진심으로 받기를 권유하고 받는 사람은 다소곳이 사양할 줄 아는 우리 조상들의 미풍양속은 어디로 갔는가.

5월 8일 일요일 흐림

몇개 남은 외동 마저 조는 가운데 실상사의 밤은 깊어만 간다. 다만 한 쪽 구석진 객방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가끔씩 도란도란 이야기 소리만 태고의 정적을 깨뜨리고 있다. 나는 수계도반과 마주 앉았다. 그 스님은 만행 중 여기에 잠시 머물며 조석예불을 도와주고 있단다. 우리는 불과 23일 간의 행자교

육원에서, 그나마 엄격한 규율과 강요되는 묵언 속에서 서로 얼굴을 대하기조차 어려

어쩌면 그 도반은 북받쳐 오르는 걱정을 못이겨 가슴 속으로 울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도반스님은 이십대 중반, 나는 오십대 후반이다.

웠는데 다만 도반이라는 이름 하나 때문에 10년 지기보다 더 깊은 정을 느끼게 됨은 무슨 까닭일까?

그동안 겪었던 일들을 소근 소근 이야기하는 도반스님의 얼굴은 갈수록 진지해졌다. 어쩌면 그 도반은 북받쳐오르는 걱정을 못이겨 가슴 속으로 울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도반스님은 이십대 중반, 나는 오십대 후반이다. 그러나 한 점의 티끌도 없이 이 세대를 초월한 우정의 향훈으로 방안을 훈훈하게 하였다.

“스님, 우리는 구도자가 아닙니까? 속인과는 무엇이 달라야 합니까. 그러나

막상 산을 찾고 보니 더 깊은 산으로 가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나는 말문이 막혔다. 나 또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스님, 저는 제주도에 가서 무려 사흘 동안 탁발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忠北 陰城에 있는 천주교에서 운영하는 꽃동네에서 사흘간 봉사도 해보구요. 식도가 탈이 나서 옆 구리에 호스를 끼워 음식을 투여하면서도 살려고 애쓰는 사람, 사지를 모두 잃고 몸통만으로 견디며 그래도 가끔씩 웃기도 하는 그 모진 생명력! 인생의 무상함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흘 동안 코를 찌르는 악취와 역겨움 때문에 밥을 먹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상주하는 수녀들은 잘도 견디더군요. 스님! 이런 제가 구도자입니까?”

도반스님은 나를 서글프게 쳐다보다가 싱긋 웃는 것이었다. 나는 그 웃음의 의미를 알 것 같았다. 지금 도반스님은 새로운 광맥을 찾아 방황하고 있다. 그 누가 이 몸부림치는 젊은 구도자를 이끌어 줄 수 있을까?

“스님! 대중은 때로는 어리

석을 수 있습니다. 무조건 대중에게 맞추기만을 강요하는 것은 잘못하면 如穢蝸螺 自穢穢他(보조범어 중에서) 즉 더러운 달팽이가 자기를 더럽히고 남까지 더럽히는 우(愚)를 범할 수 있습니다. 개인은 대중에게 맞추고 대중은 법에 맞출 때만 서로 화합할 가치가 있지요.”

나는 전적으로 동감해서 맞장구쳤다.

“그렇습니다. 누군가 말했지요. 지킬 수 없는 法은 타지않는 등불이라고. 戒 또한 지키므로서 大自由를 만끽할 수 있다고 했지요. 사회현실을 보면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는 그레샴의 법칙이 떠오릅니다. 다시말해 현실사회는 비교적 독한 사람이 착한 사람을 제치고 이득을 취해 잘산다는 뜻과 일맥상통하지요.”

땡! 땡! 땡! 어느덧 석 점을 알리는 시계소리, 법당으로 향하는 우리의 걸음은 무겁기만 했다.

5월 9일 월요일 맑음

아침공양을 마치고 떠나려는데 도반스님이 봉투 석장을 들고 왔다. 그는 간 밤에 함께 묵은 객승 두 분과 나



게 하나씩 나누어 주었다. 삼만원씩 들어있었다. 나는 주지스님이 주신 줄 알았는데 알고보니 그 돈은 도반 스님이 어제 받은 한 달분 보시를 몽땅 털어 나누어 준 것이었다. 나는 콧시울이 시큰해짐을 느끼며 잊고 있었던 사실 하나를 물어보았다.

“스님! 이 절에서 수계한 우리 도반 스님은 어찌되었습니까?”

“바로 어제 어디론가 떠났습니다. 주지스님께 쪽지 한장을 남긴 채 그동안 받은 보시금 삼십만원을 몽땅 털어 염주 한보따리를 사가지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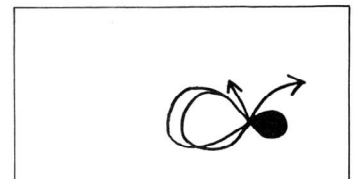
나는 또 한 번 감격하지 않

을 수 없었다. 이 젊은 스님들의 가슴 속에 맥박치는 열화같은 구도의 불길이 그치지 않는 한 우리나라 불교의 미래는 어둡지만은않다. 나는 이 도반스님들 앞에서 자꾸만 작아지는 자신을 느꼈다.

도반 스님은 오늘 이 절을 떠난다. 버스 정류소까지 함께 가자더니 잠시 잠이 들었다. 나는 그를 깨우지 않고 발길을 들렸다. 내 가슴 속에 깊이 새겨진 그의 영상을 깨고 싶지 않았다. ‘스님! 부디 건강하시오’

나는 지리산 깊은 골짜기를 혼자서 걸었다. 마침 산 기슭에 조그마한 암자가 도사리고 있었다. 법당에는 주먹만한 자물쇠가 매달려 있었으나 다행히도 마루에 쇠북종이 걸려 있었다. 나는 조용히 종성을 시작했다. 둥! 둥! 둥! 어느덧 내 두 뺨에는 뜨거운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다. 종소리는 개울을 건너 저 푸른 하늘 높이 사라져갔다. 멀리 멀리...

—下 略—



‘나’ 라는 것의 군더더기

보 적

만물이 기지개를 켜기 전 아련하게 컷가를 때리는 목탁소리에 나는 잠을 깬다. 이렇게 하루가 시작된다. 몇달 전만 해도 아침에 일어나면 전투화 소리와 고참들의 고향으로 떠오르는 해를 맞이하곤 했었는데 문득 지금의 나를 돌이켜 보면 그때의 나는 누구이고 지금의 나는 누구인가라는 생각이 물결치곤 한다. 지금까지 스물 몇해의 삶 속에서 나의 군생활은 많은 자극을 주었고 조금은 새롭게 사물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 더욱이 내 마음 속에 푹푹 문을 걸어 잠그고 있던 많은마음의 모습들, 숨겨진 욕망, 나의 한계, ‘나’ 라는 관념의 다양한 모습들, 어쩌면 안이하게 승려가 되면서 받아들인 것들을 구체적으로 경험하고 느낄 수 있었던 것이 나에게 가장 많은 도움을 주었던 것 같다.

가끔 내 자신에게 되묻곤 한다. ‘너는 지금껏 어떠한 삶을 살았으며 지금은 어떻게 살고 있는가’ 스물 몇해의 삶 속에서 경험했던 그 그늘들을 되돌아 본다. - 모든 사람들이 나보다 더 힘들게 살았고 더많은 혼란과 갈등을 경험하였으리라 - 나는 많은 나이가 들기도 전에

삶을 조금은 살아본 것 같은 느낌을 경험했다. 삶이란 무엇이고,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나는 늘상 허무했고 무언가를 잃어버린 것 같은 느낌 속에서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을 메꾸려고 하고 있었다. 그래서 나는 시간만 나면 한강변을 걸어서 그 물을 따라 멀리 떠나갔다가 되돌아 오곤 했다. 강물은 늘 묵묵히 소리 없이 흘렀고 나는 강물을 지켜보면서 많은 시간을 보내곤 했다. 그리고 길거리에서나 차를 타거나 걸어다닐 때 나는 보았다, 그 눈들을. 성난 파도에 표랑(漂浪)하고 부침(浮沈)하는 빈 배 같은 공허한 눈들을...

나는 또 시장으로 달려갔고 수많은 사람들의 다리 사이에서 다 늙으신 할머니들과 헤진 누더기같은 모습으로 앉아 계신 아주머니들을 보았다. 얼마되지 않은 고사리나 도라지 같은 나물을 고무 대야에 담아놓고 무언가를 물끄러미 응시하는 모습으로 하루를 꼬박 앉아 계시는 모습들을...

초췌하고 생기가 빠진 모습이긴 하지만 그 속에서도 삶을 저버리지 않으려는 젖어 있는

는 속에서 나는 무언가 생의 비밀이 감추어져 있으리라 생각하곤 했다. 어렸을 때 아버지도 가끔은 얼마되지 않은 작물을 가지고 시장에 팔러 가시면 나는 먼지가 폴폴 날리는 정거장에서 해가 다 질 때까지 아버지를 기다리곤 했다. 무엇보다도 몇백원 안되는 용돈이라도 쥐어 주리라는 기대감에 가슴을 졸이면서, 아버지가 지갑에서 돈을 꺼낼 때 지폐라도 몇장 보이면 웬지 편안하고 넉넉했지만 텅 빈 지갑이 보이면 웬지 쓸쓸해지고 삶의 비애감이 느껴졌다. 어쨌든 이런 감정들도 시장에서는 늘 경험되어지곤 했다. 아버지는 돈만 생기면 술을 사드셨고 나는 그런 아버지로부터 삶을 배웠다. 어린 나이에 삶은 고통이라는 것을 그리고 경험되어지는 무엇이라는 것을.

죽음은 또 나에게 무엇이었던가. 나이가 열살쯤 되었을까. 조그만 촌락에서 살았는데 동네의 약국 아저씨가 약을 먹고 자살했다는 소문이 들리더니 어느날 소가 달구지 끌고 가듯이 느릿느릿 상여가 나가고 있었다. 나는 친구들과 놀다가 혼자서 아무 생각없이 상여를 따라갔고 매장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그 옆 풀밭에서 아주 편안하게 놀았다. 지금 창호를 뚫고 방바닥에 비치는 맑은 햇살에 조용히 젖어드는 잔잔한 기쁨을 맛보는 것 처럼 그때는 죽음이란 아주 편안한 무엇이라는 느낌에 사로잡혔을 뿐 별다른 느낌이 없었다. 그 후로 할아버지의 죽음을 경험하고 조금 더 커서는 술을 좋아하시던 아버지의 죽음까지 맞이하게 되었다. -그 후로 내가 소멸되리라는 극심한 죽음에 대한 공포를 경험했지만 죽음을 정면으로 받아들일 용기가 나에게 있었던가!- 아! 아버지가 나에게 보인 삶은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일까. 무엇이 피로워 그렇게 방황하셨던 것일까. 술과 집짓는 일과 농사라는 평범한 삶을 사시

아버지는 돈만 생기면 술을 사드셨고, 나는 그런 아버지로부터 삶을 배웠다. 어린 나이에 삶은 고통이라는 것을, 경험되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죽음은 또 나에게 무엇이었던가.

면서도 그토록 갈구 하셨던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나에게 늘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였고 삶이 힘들어질 때마다 나를 되돌아보게 하는 자극제가 되곤 했다.

그러면서 나는, 조금씩 성장을 했고 명상의 삶을 살며 진리를 구하는 분을 만나게 되어 명상을 지도 받으면서 명상과 깨달음에 관계된 서적을 탐독하고 또 명상을 하면서 삶을 바라보게 되었다. 하지만 나는 명상하면서도 명상을 하지 못했다는 점을 솔직히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명상은 나에게 정신적 전환점과 안정을 주었지만 정신적인 혼란과 갈등도 가져다 주었다- 갈등과 번민 속에서 마음은 더 긴장되고 굳어지는 것 같았고 깨달음을 구한다는 관념에 사로잡혀 현실을 올바르게 직시하는 눈을 잃어버린 것 같았다. 또, 다른 완전한 삶의 실체가 있으리라는 열망에 고통은 더 심해져 갔고 평소에 자주 씌고 자문을 구하던



잘 알던 스님을 통해 본격적인 근본적 문제해결의 길이라는 출가로 이어질 수 있었다. 그후로 몇년이 지난 이제 겨우 조금 알 것 같다. 깨달음은 관념이 아니라는 것을. 오히려 그 반대로 우리 현실의 삶을 직시하고 '나'에 대한 애착을 끊고 순간순간 주어진 삶을 가장 충실하고 진실되게 사는 것이 깨달음이고 진리라는 것을 지견으로나마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부처님으로부터 모든 조사스님들과 깨달은 성자들이 순간순간 깨어있으라고 한 것이 아니겠는가 우리의 살아있는 생생한 삶의 모습없이 진리가 따로 있고 깨달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고 들었다. 하지만 우리들의 사는 모습은 어떠한가. 생사문제라는 일대사를 해결하기 위해 모든 반연을 끊고 출가를 했으면서도 오로지 깨달음이라는 관념에 사로 잡혀서 생각만 짓고 있지는 않은가. 수행자의 복장을 하고 있지만 과연 그 옷에 걸맞는 눈빛과 삶의

자세를 갖추고 있는가. 승복에 우리 자신을 꼭꼭 숨겨두고, 우리 대신에 삶의 고통을 짊어지고 사는 사람을 외면하고 나와 남들을 속이고 있지 않은가. 나 자신부터 통찰하여 볼 일이다. 정말로 열심히 수행을 해서 순간 순간 최상의 삶을 꽃피워 그 향기를 다른 모두에게 전해 주어야 할 우리들이 현실이 주는 안일함과 타성에 젖어서 수행을 등한히 한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진리에 대한 생각을 하고 말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지만 한 발 더 나아가 수행의 실천으로 꽃을 피우는 것이 우리의 할일이 아닐까. 하루 세번부처님을 뵈고 불보살을 목청껏 부르며 무릎이 닳도록 절을 하면서도 현실적 용심(用心)의 문제에 있어서는 또 얼마나 부족한가. 나 자신부터가 현실의 제반 문제들에 대해 냉혹한 비판과 질책만 내세웠지 본분에 상응하려는 노력은 얼마나 하고 있는가. 겸손하게 우리의 발길을 돌아보며 그릇된 점을 솔직히 인정하고 회광반조(廻光反照)하는 바탕 위에서 오로지 부처님의 법에 의해 진실로 수행에 힘쓰는 것이 모든 문제들의 뿌리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근본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눈이 녹아서 처마밑으로 낙숫물 떨어지는 소리가 들린다. 파도소리같이 그윽히 멀리 되돌아오는 조계산의 솔바람 소리도 훈기를 띠어가고 있고 산 능선너머 구름을 뚫고 비치는 햇살이 더욱 따사롭게 느껴진다. 이때, 얼마 안 있어 대지는 새싹을 틔우고 다시 힘찬 생동을 시작하리라. 문 창살에 나뭇가지 그림자가 드리워 조용히 문을 두드릴 때면 하루를 마감하는 죽비 삼성이 울릴 것이리라. 우리 수행자에게는 늘 새롭게 깨어나라는 경쾌소리로 들리리라. 조계산의 정적이 새롭다.

나아닌것같은나와나인것같은나

회 일

삼각형의 한 빗변 오르기
빗변에 기댄 사다리오르기로 대체함
정점은 너무 좁아 엄지발가락으로도 딛고 설 수가 없다
추락!
하면 이미 심연의 진흙에서
밑변의 광활함과 매끄러움에
섬뜩하다
256 칼라 모니터 위에 나타난 나는, 막
튀어오른다. ↑키를 때려라 세계 더 세계
나는 정점을 넘어 저편
빗변의 등에 등으로 떨어진다
고고고고고고고고
언제까지 '꿈' 로울까
더듬는다
사방으로 향한 방향타들
無心이 되지 않으면 짐체 오르기 힘들다
빗변과 사다리를 올라
進一步하여야 함에도 끝끝내
오르지 못하고 다시
쳐박히는 밑변에서

'다양한 색깔을 지정하여 脫出하라!'

메신저는 금방 사라지고 다시는,

다시는 나타나지 않는다

(思量分別 말라)

나는 잊어버린 것마저 잊어버리고 다시 튀어오른다

손은, ↑ ← → ↓ 키들 사정없이,

빠르게, 두들겨, 강요하여, 나를, 좌, 우, 앞, 뒤로

심지어 화면 밖으로 통긴다

△(추적자)는 나를 집게질하여

데리고 간다 아!

대공분실 같은 컴컴한 방으로

홀로 남겨두고 나가버린다.

짼! 짼! 짼!

다음광경으로, 손은 부지런하다

1234

ABCD

키 키 키 키들

지문 위로 지문이 찍히고 찍히고 찍히고

혐의와 혐의와 혐의를 벗지못하고

△를 재빠르게 추락시킨다

‘정점에 선 나를 찾으라고?’

삼각형의 한 빗변을 내려가기

미끄러지지 않고 당당하게 내려가기

숨막히는 밑변의 교차점에서

완전히, 생의 방향을 달리할 때까지

최후까지……

아! 不能見如來不能見如來不能見如來不能見如來不能

松廣寺佛日會館(修練院)건립을 위한 만등불사 모연문

귀의삼보 하옵고,

송광사는 佛日 普照국사의 원력으로 증흥된 이래 16국사를 비롯한 수많은 선지식을 배출한 승보 도량으로 현재 100여명의 대중이 정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안으로 수행의 연을 구축하여 이제 신도들은 물론 전국불일회원의 수련장소인 불일회관 건립을 위한 만등불사를 모연하게 되었습니다.

수련회는 조계총림이 개원된 이래 25년의 역사 속에서 튼튼한 기반을 다져왔으나 수련장소와 편의 시설이 늘 협소하여 어려움을 겪어오던 중, 지난 2536(1992)년 6월 1일 수련 전용으로 사용될 불일회관 건립 추진위원회가 발족되었는데 그 첫 불사가 만등불사입니다.

정성을 모아 발심한 이마다 등불을 밝히는데 보시하여 마음 속 어두운 그늘을 지우고 지금까지 지어온 허물을 참회하는 인연을 맺고자 합니다. 이 불사의 원만한 회향을 위하여 관음전에서는 동참자를 위한 기도를 올리며 회향일 전날 밤(음. 3월 25일, 보조국사 종재일 전야)에 송광사 도량을 만등으로 밝힐 것입니다.

송광사와 인연 맺으신 분은 물론 본말사 주지스님과 전국불일회 임원진 이하 불일회원, 수련생 및 자원봉사자 여러분께서는 기꺼이 동참하시어 이 불사가 기초가 되어 수련원이 속히 건립될 수 있도록 불전에 향사르고 발원하옵니다. 나무 본사 석가모니불.

* 입재일 : 불기 2537(1993)년 음력 11월 13일 (양력 12월 25일 구산 스님 입적 10주기)

* 회향일 : 불기 2538(1994)년 음력 3월 26일 (양력 5월 6일 보조국사 종재일)

* 1인(人) 1등(燈) 1만원

* 계좌번호 : ○농 협 : 615107-51-008814 송광사

○우 체 국 : 501676-0014699 송광사

○국민은행 : 551-01-0470-485 송광사

* 주 소 : 전남 승주군 송광면 신평리 송광사

전화 (0661) 53-2130 · FAX (0661) 53-2245

☎41-930

승 보 증 찰 조 계 총 립 송 광 사 방 장 회 광 승 찬
대한불교 조계종 제21교구 본사 주지 범 일 보 성

송광사 승가대학 대중명단

(2537년 동안거)

학장 : 보성
강주 : 지운
학감 : 보성
강사 : 지묵 · 지수
중강 : 원순 · 지우

입승 : 고경
찰중 : 천호

사교

효원 고경 정률 대전

사집

일수 천호 진경 하일 계성

치문 삼

혜수 석우 노휴 보적 법현 금룡 도운

치문 하

희일 원당 시공 보행 보원 선용 도안 본경 혜관



해청당은 송광사 큰방이며 승가대학으로 쓰이고 있다.